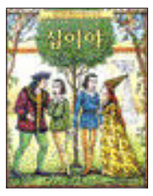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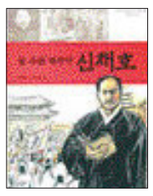
▲노마의 발견-철학하는 내가 좋다=어린이들이 생활속에서 자연스럽게 철학을 받아 들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창작철학동화 시리즈. '제1권 철학하는 내가 좋다'의 주인공 노마와 등장인물들을 통해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다.
〈해냄주니어·9천원〉

▲반기문 총장님처럼 되고 싶어요=지난해 유엔사무총장으로 선출된 반기문 총장의 성장과정을 담은 책으로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내용이다. 외교관이 되기로 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반 총장의 이야기가 흥미진진하게 그려져 있다.
〈명진출판·9천500원〉

▲아하! 그땐 이런 문화재가 있었군요=이 물건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무엇에 쓰이던 것일까 등 박물관에 전시된 문화재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학습만화. 신라금관에 달린 장식의 의미, 고려청자 비색의 비밀, 조선시대 성곽을 쌓은 돌의 모양이 왜 다른지 문화재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다.
〈주니어김영사·9천500원〉



▲십이야=세익스피어의 동명 희곡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쓴 그림책이다. 오시노 공작, 올리비아, 바이올라를 중심으로 얽히고 설킨 남녀의 사랑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어리석음을 풍자한다. 〈미래 M&B·1만2천원〉



▲늘 푸른 역사가 신채호=역사학자이자 독립운동가, 언론인이었던 단재 신채호 선생의 일대기를 조명하고 있다. 꼼꼼한 사료를 바탕으로 단재의 뜨거운 열정과 사상, 인간적인 면모 등이 잘 나타나 있다. 〈창비·1만2천원〉

탄압·금기의 기록 '동성애 발자취'

동성애의 역사 플로랑스 타마뉴 지음

탤런트 홍석천, 팝 가수 조지 마이클, 앨튼 존…. 이들의 공통점은 동성애자로 커밍아웃을 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와는 달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이 좀 덜한 편이다. 동성애자가 대도시의 시장(파리의 베르트랑 들라노에)이 되기도 하고, 며칠 간의 축제와 거리 퍼레이드로 단체 커밍아웃을 시도한다.

그렇다면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에 비해 동성애를 관대하게 포용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할까. 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서양에서도 수백년에 걸쳐 동성애는 금기시돼 왔으며 온갖 탄압을 겪어야 했다. '커밍아웃'이란 단어가 오랫동안 벽장 속에 갇혀 있던 비밀을 밖으로 꺼내는 것을 의미하는데서도 알 수 있다.

동성애 연구의 대가인 플로랑스 타마뉴 프랑스 릴 대학 교수는 '동성애의 역사'에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동성애가 겪어온 길을 돌아본다. 서양인들의 동성애에 대한 상대적 관대함은 사실 오랜 탄압의 역사 끝에 얻어낸 미미한 진전에 불과하다. 저자는 동성애가 어떤 탄압을 받았으며, 어떤 방식으로 탄압에 저항했는지를 보여준다.

책의 원제는 '나쁜 성? : 동성애 표현의 역사'다. 저자는 동성애가 문학·예술작품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표현돼 왔는지를 되짚고 있다. 동성애에 대해 관대해진 지금이 있기까지 예술가들은 '가랑비에 옷 젖듯' 은밀하고도 상징적인 방법으로 동성애를 표현해왔다고 말한다.

지금까지의 동성애 관련 책들이 동성애에 관한 편견을 깨거나 더하는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주력했다면, 이 책에서는 철저히 객관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동성애가 재현된 역사를 사실 그대로 접근할 뿐, 가치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기고 있다. 가십거리도 철저히 배제했다. 그래서 딱딱하다는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저자는 14세기부터 세 시기로 나눠 설명한다. 전환점이 되는 것은 프러시아 전쟁이 있던 1870년과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중세와 초기 근대 '소도미'(소돔 놈들)란 단어로 불린 동성애자들은 하느님과 국가에 대항하는 범죄자로 분류돼 화형에 처해졌다.

그러나 도나텔로(1386~1466)는 '다비드'상에서 아찔한 동성애적 관능미를 보여줬고, 레오나르도 다 빈치(1452~1519)는 '세례자 요한'을 통해 중성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등 동성애를 주제로 한 예술가들의 노력이 이어졌다. 그 결과, 18세기 일부 계몽주의자들이 동성애를 개인의 취향 차로 분류하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일련의 역사를 통해 현재 서양에서는 동성 커플의 법적 인정 등 사회적 인정을 받는데 성공하는 듯 보이지만 우리나라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대다수 동성애자들에게 커밍아웃은 요원한 일로 남아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마고·1만3천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인류 역사와 함께 해 온 동성애
문학·예술작품 통해 들여다보기

필립 코어 작 '재봉틀 작업대와 우산의 행복한 만남 : 앤디 워홀과 마르셀 뒤샹'(1978년). 동성애자로 알려진 뒤샹과 워홀이 성적 암시 가득한 자신들의 작품에 둘러싸여 체스를 두고 있다.

시사저널 기자 23명이 말하는 기자의 삶

기자로 산다는 것 고종석 외 지음

지난해 6월, 주간지 '시사저널'에는 태풍의 눈과도 같은 조용한 사건이 벌어졌다. 삼성 이학수 부회장의 인사 스타일을 비판하는 기사가 금창태 사장에 의해 일방적으로 삭제된 것이다.

이윤삼 편집국장이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하자 금 사장은 곧바로 수리했고, 저항하는 기자들은 감봉 등 중징계로 줄줄이 처벌됐다. 편집국과 사장 간의 조용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다 지난 1월 노조 측이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이후 사측은 직장 폐쇄로 맞대응했다.

'기자로 산다는 것'은 이른바 '시사저널 삼성 기사 삭제 사건'으로 길거리에 나앉게 된 '시사저널'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전·현직 시사저널 기자 23명이 말하는 그들의 치열한 삶은 '시사저널 사태'가 발생한 근본 원인을 일깨운다. 편집국장을 역임했던 소설가 김훈의 인터뷰, '시사모'(시사저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대표인 평론가 고종석씨의 글 등도 실렸다. 〈호미·1만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과학기만 행위 구조적 원인 파헤쳐

진실을 배반한… 브로드 외 지음

지난해 한국 사회는 황우석 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과학사기극을 겪었다.

당시 이 사건을 접한 대부분 국민들은 '다른 곳도 아닌 과학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품었다.

뉴욕타임스 과학 전문기자로 두 차례 퓰리처상을 받은 윌리엄 브로드와 황우석 사건을 취재한 니콜라스 웨이드가 쓴 '진실을 배반한 과학자들'은 이 같은 과학기만 행위의 실상과 구조적 원인을 파헤친 책이다.

저자들은 과학이 다른 사회 분야와 마찬가지로 부정과 기만이 벌어질 수 있는 보편적인 영역이라는 것을 부정행위 관련자들과의 인터뷰와 풍부한 자료를 통해 설명한다.

사후 50년 만에 사기로 밝혀진 히데요 노구치의 매독, 소아마비 생물체 배양연구, 제자의 연구결과를 도용해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앤터니 휴이시 등 다양한 사례가 소개된다. 〈미래M&B·1만4천500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내 인생 한권의 책
이민규 '네 꿈과 행복은 10대에 결정된다'

세월은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나 보다. 어느덧 지천명(知天命)의 나이에 이르렀지만, 나에게도 어른이 되기만 하면 무슨 일이든 맘껏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10대, 20대의 시절이 있었다. 당시에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수많은 선학들이 남긴 평범한 진리에 대한 통찰들은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터득된다는데 아쉬움이 더 큰 것 같다.

지금으로부터 5년전, '네 꿈과 행복은 10대에 결정된다'(더난출판)가 서점에 나왔을 때는 청와대 교육비서관으로 근무하던 시절이었다.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지만, 당시는 10대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로서, 교육 전반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전문가로서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고민과 더불어 해결 방안을 찾던 시기였다.

이 책은 '심리학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부제에서 보듯 10대들을 위한 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비단 10대에만 한정하지 않고 대학생에게, 학부모에게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충분히 공감하고 되새겨볼 만한 얘기들을 전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서재 한켠에 꼽아두고 가끔씩 꺼내보던 이 책을 지난해 대학 총장으로 자리하면서 다시금 보고 있다. 근래 들어 대학교육에 대한 비판과 자성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참교육'의 중요성

사실 요즘과 같은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개개인의 전문지식 못지않게 올바른 습관, 대인관계, 의사소통능력,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등이 중요함에도 그에 따른 교육은 외면받는 것이 현실이다. 부모와 자녀는 물론 우리 사회 모든 관계망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위기의 원인도 기본 교육의 경시에서 비롯되었음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책은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와 생활태도, 이를 위한 발상의 전환 등 참교육, 기본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자신의 꿈과 행복을 위해 개개인이 변화의 계기를 찾는 자기 주체적인 사고를 가질 것을 주문한다. 나아가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배려하는, 즉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을 잊지 말도록 당부하고 있다.

사실 요즘 대학은 물론 정부 조직이나 기업 등 사회 여기저기에서 경쟁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나는 기본 교육이 외면되어서는 안되듯 그에 앞서 개인 스스로의 변화와 혁신, 즉 발상의 전환을 통한 자기 혁신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시 꺼내든 이 책의 마지막 책장을 덮으면서 서두에 적힌 새뮤얼 스마일즈의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달라진다"는 말을 다시 한번 음미해본다. 교육의 일선에서 우리 학생들을 만나면 강조하고 싶은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꼭 10대가 아니더라도 지금 인생의 어느 시점 어느 위치에 있든 생각을 바꾸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마음의 눈을 먼저 갖춘다면 언제 어디서나 인정받고 환영받는 존재가 되리라 확신한다. 그것이야말로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한 지름길이기도 할 것이다.

평소 늘 강조해온 바이지만, 모든 교육의 시작과 끝이 전인교육이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면 지나친 비약인가.

정 기 언
〈동신대 총장〉